

제2호 1991. 3. 10.

아이벙 놀이방



함께 가자 우리!

함께 가자 우리 이 길을
셋이라면 더욱 좋! 둘이라도 함께 가자
뒤에 남아 먼저 가란 말일랑 하지 말자
앞서 가며 나중에 오란 말일랑 하지 말자
일이면 일로 손잡고 가자
천이라면 천으로 운명을 같이하자
둘이라면 떨어져서 가지 말자
가르칠리 들뜬 물이라면 건너주!
물 건너 점점 산이라면 넘어주자
그게 넘어 마을 뚝마르면 쉬어가자
서산 낙일 해 떨어진다 어서 가자 이 길을
해 떨어져 어두운 길
네가 넘어지면 내가 가서 일으켜주!
내가 넘어지면 네가 와서 일으켜주!
산을 넘! 물을 건너
언젠가는 가야 할 길
누군가는 이르러야 할 길
가시밭길 하얀길
예헤라, 가다 못 가면 쉬었다나 가지
마픈 다리 서로 기대며



아이벧놀이방 개원2주년을 맞으며

오 규만 목사

아이벧놀이방이 지동 인계동지역의 저소득층 맞벌이 부부들의 자녀들을 위하여 문을 연지 벌써 2주년이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제대로 조건을 갖추지도 못하고 의욕만 앞서서 시작을 하였는데 그동안에 어려운 고비들을 여러번 넘기면서 오늘에 이르게 된것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아이들이 부모님과 떨어지지 않으려고 눈물바다가 되면 몇시간이고 아이들을 달래면서 업고있는 선생님들의 모습, 아이들의 가정에 문제가 생기면 아무것도 모르면서 고생하거나 주눅이 들어있는 아이들의 모습, 탁아 입법이 국회를 통과하자 함께 고민하고 해결방향을 모색하는 선생님들과 자모들의 모습, 한편으로는 애써 준비한 행사가 관심의 부족으로 참여가 저조했을때 가슴 아파하는 선생님들의 모습을 보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수원지역의 어대생들이 찾아와서 자원봉사하는 손길을 보고, 운영상의 어려움을 주변에서 돕고 계시는 여러분들의 관심과 기도를 통해서 힘을 얻게 됩니다. 더욱 보람찬것은 놀이방에 나오는 아이들이 생활의 질서를 배우고 공동의 삶을 통하여 새롭게 변화되는 모습을 보게 될때 감사함을 느끼게 됩니다.

이제 놀이방이 2년이 되면서 최소한의 공간과 조건은 마련되었지만 앞으로 해결해나가야할 과제는 더 많음을 느끼게 됩니다. ① 탁아입법이 통과되면서 현재의 시설과 조건으로 계속적인 운영이 어렵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독립된 공간을 확보하고 시설을 보완하는 과제입니다. 91년도에는 현재의 교회가 위치한 부근에 빈민선교를 위한 사회봉사관을 설치할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것입니다. 이는 탁아 문제 뿐만아니라 국민학교 중고등학생들의 교육문제등에 접근할것입니다. ② 2년동안의 과정을 통하여 확연하게 확인할수 있었던 사실은 단순히 아이들을 돌보고 다른 영리를 목적으로하는 탁아소보다 보육료를 적게 받음으로서 문제가 전부 해결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그동안 부모님들의 단순하고 일시적인 상황판단의 미스로 인하여 가정이 깨지고 불화가 계속되는 사실을 목격하였습니다. 그결과 아이들에게는 엄청난 정신적 상처를 입히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여러 방면의 교육과 함께 사는 공동체적 삶의 나눔을 통하여만 이를 극복할수 있도록하는 과제가 더욱 중요하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③ 마지막으로 확인하고 싶은것은 아이벧놀이방을 누가 왜 하느냐 하는것입니다. 이러한 노력은 한 개인을 위한것도 선생

님들의 땀과 수고를 드러내기 위함도 아니요 더더욱 아닌것은 밥벌이를 하는 것도 아니요 후원하는 분들의 위로가 되자는 것도 아닙니다. 분명한것은 아이들을 사랑하고 힘들게 살아가는 부모님들을 조금이나마 돕는것이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일임을 우리들의 가슴속에 다시한번 확인해야 할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를 기원합니다.

1991. 3. 6. 아이벧놀이방의 2주년을 맞으며



아이벳 놀이방의 90년 무엇을 했나

• 5월 2일 "선교 문화제"

한빛교회에서 놀이방과 광복방 기금마련을 위한 문화제.
기성교회의 많은 참석으로 선교사업의 하나인 아이벳 놀이방이
많이 홍보되었다.

올해에도 선교문화제를 열 예정

• 놀이방 소풍 : 5월 13일

한빛교회 야외예배점 놀이방 소풍을 대림동산으로 갔었다.
놀이방 식구와 교회신도들이 함께 버스를 타고 노래를 부르며
대림동산에 도착. 마침 소나무숲이라 송화가루가 바람에
날려 분위기를 가일층 더 했고 모두가 한 데 어울려
즐거운 하루를 보냈다.

• "일하는 어머니의 나눔자리" 공동자모회

7월 8일 소꿉마당, 아이벳놀이방의 공동주관으로 탁아입법의
필요성과 올바른 탁아법에 대하여 지역사회 탁아소연합회장
김경태씨를 모시고 강연회 개최.

비록 적은수의 참여속에서 진행되었으나 수원지역의
비영리 민간탁아소들이 공동으로 행사를 진행한 것에 매우 큰

4. 의미를 지녔음.



• "무료 외호, 무료 미용"

7월 15일, 19일에 걸쳐 장릉리 외호 선교원에서 무료로
진료를 하였다. 그러나 거의 준비상의 부족으로 커다란
효응은 없었다.
미용에서도 시간이 서로 맞지 않아서 안타까움 많았다.

• 9월 18일 ~ 23일

"탁아법 신고거부 서명운동" 실천

자모님들이 저마다 그루된 탁아법을 올바르게 비판하면서
신고거부서명용지를 받아내는 운동을 하였다.
자모·자부들의 진지한 노력이 앞으로 놀이방에 어떠한 일이
닥치더라도 이겨낼 수 있는 단결력을 볼 수 있었다.

• 수원 여성한마당

수원지역의 역사상 처음으로 열어진 여성강치마당.
10월 14일 성균관 대학에서 수원지역의 모든여성이
한 데 아우러지는 자리.

좋은 프로그램도 많았고 먹거리도 많았는데 우리 놀이방
자모들의 참여가 부족하여 슬픈 눈물을 흘리기도 했던 날
그래도 자신감있게 참석하여 "자유상"을 받아 색깔바구니
상품도 다 왔던 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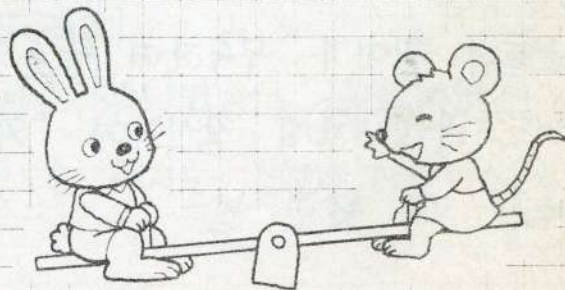
뒷풀이도 있는데 엄마들의 집 걱정, 저녁 걱정으로 지는 해를 등지고 집으로 성급히 돌아왔다.

• 11월 자모회 "주택"에 관한 문제

주택 임대차 보호법에 의하여 폭등하는 전세값이 우리 시민들 사이에 문제거리로 등장하면서 놀이방에서는 자모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생활나눔 시간을 가졌다. 자모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열기에 열기를 더 했다.

• 11월 25일 락아범 날치기 통과 규탄대회

쌀쌀한 날씨에도 전국 의 엄마·아빠들과 꼬마친구들이 여의도에 모여 민자당안 규탄대회를 열었다. 국회의사당까지 가득 진출도 하였는데 엄마들의 단결된 힘에 놀란듯, "국회 의사당 안까지 들어가자", "민자당원 물러가라" 이소리가 여기저기서 터져 나왔다. 피부로 느끼는 엄마·아빠들의 절규는 우리 모두의 눈물을 글썽거리게 했다. 아이벳 놀이방 자모·자부들의 참여가 많았으면 더욱 좋았을 것일



• 발표회 및 송년잔치

90년을 보내며 놀이방 친구들과 발표회와 놀이방 식구들의 송년잔치를 12월 29일 열었다.

속스러워 하는 친구들의 모습과 즐거워하는 식구들의 모습이 우리 모두의 불을 빨갛게 물들어 놓았다.

자원봉사 선생님들의 노래자랑, 춤자랑.

놀이방 자모들의 춤자랑, 놀이방 자부들의 특별무대 등 즐겁고 재미있는 시간의 연속.

마지막으로 친구들에게 선물을 주며 한 말은

"사랑하자 1살 더 먹으니
씩씩한 형아가 되어야 해."



올바른 탁아법

이래야 한다.



① 지원대상의 현실화 및 객관화

탁아법은 급변하는 사회공동체의 변화에 따른 새로운 자녀양육의 대안을 모색하는 것이며 더불어 현실적으로 자녀양육에 가장 큰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에 대한 국가적 지원의지를 나타내는 것이다. 여기에서 저소득층은 시행령 개정안에서 나타난 오류를 극복하고 현실적 객관적, 과학적 근거에 기초한 지원대상으로 명시되어야 할 것이다. 지원대상을 법정 영세민으로 한정하는 것- 이는 의료, 주택 등 다른 부분의 지원기준이 될지는 모르나 '근로'를 사유로 한 탁아요구집단과는 전혀 상관없는 지원선이다. 이 집단은 일반저소득층 혹은 중하층 저소득층이라 표현되기도 하는데 문제는 그 집단이 탁아를 가장 절실히 요구하면서 지원대상이 될 수 밖에 없는 집단임을 명시해야 한다는 것이다.

일반저소득층의 지원여부는 시행령에 나타난 문구로 군수, 시장이 추천한 자라는 지극히 추상적 표현이 되어서는 안된다. 예를들어 30만원의 벌이를 하는 노동자의 자녀가 새마을 유아원에 가면 추천대상이 되고, 가정탁아소에 오면 생활보호대상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게 현실적인 사례이다.

이는 또한 '우선입소'대상에서 제외됨으로 한정된 탁아공급에서조차 법적 보장을 받을 수가 없다. 그러므로 누가 가장 필요하며 동시에 지원되어야 하는가가 현실적, 과학적 근거를 토대로 탁아지원대상으로 설정되어야 한다.

② 지역탁아소가 인정되어야 한다.

여성개발원 자료에 의하면 0세 - 6세 아동의 총수는 400만명이고, 150만명이 취업모의 자녀이며 그중 가정내에서의 대리양육이 가능한 아동을 빼더라도 82만명으로 추정된다. 반면, 실제로 탁아기능이 제대로된 종일탁아소에 입소한 아동은 만 6천명 정도이며 그중 5천명은 지역탁아소에 입소했음이 잠정 집계되었다.

8

이것 저것 다 빼고 남은 82만명에서조차 2%가 안되는 탁아공급의 현실!

이것은 지역탁아소를 겨냥한 제반규제 및 정책에서의 배제가 단순히 지역탁아소들의 탄압이라는 점을 넘어서 저소득층 탁아요구에 돌을 던지는 반민중적 정책이므로 이에 대한 저지 및 지역탁아소의 정당성이 확보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③ 탁아소의 양적 확대를 보장하는 내용이어야 한다.

이는 설치주체에 관련된 문제로 기초 시행령 개정안이 시설탁아, 가정탁아로 형태를 구분하고 시설탁아의 경우 법인만이 설치 가능케 규정한 것은 결국 탁아소 확대를 저해하는 요소가 될 것이며 법인설립 간소화 조치나 개인의 참여가 보장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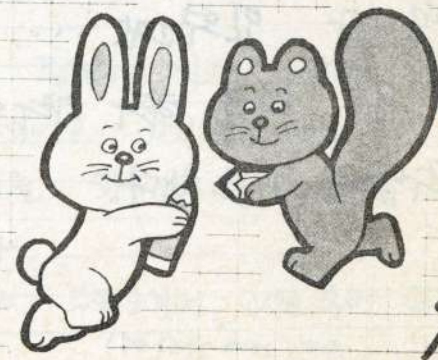
④ 자율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낮은 연령의 아동에게 획일적인 교육이 강요되어서는 아니되며 지역실정에 맞는 다양하고 자율적인 운영을 보장하는 내용이어야 하고 이를 저해할 소지가 있는 행정의 과다 개입은 효율적인 운영의 어려움을 초래한다.

⑤ 상업성이 배제되어야 한다.

탁아정책은 기본적으로 복지정책이어야 하며 영리사업의 가능성을 열어두어서는 안된다. 이를 위해서는 정부의 제정확보 및 지원의지가 보다 강력히 제시되어야 한다.

⑥ 위 내용을 담보한 올바른 탁아정책의 실행을 위해서는 국가의 책임과 의무가 보다 강력하게 부각되어야 한다.



9

엄마라는 것이 부끄러울때가...

박 봉자 (윤준희 자모. 자모회장)

요즘 허리띠를 졸라매고 먹고 살기 힘든 세상에
아마 몇 놀이방이라는 작은 공간 찾아 들어보지도 벌써 2년이
되어가고 있는 동안 많은 것을 생각하게 되었다.

각각 다른 아이들의 행동

그리고 우리 아이의 행동

더할도 안되어 그만두는 아이들.

부모의 잘못으로 인하여 정신적 충격을 받는 아이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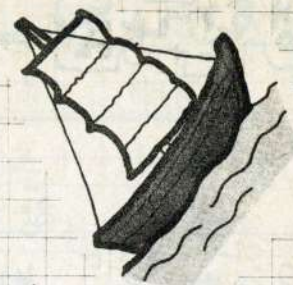
이런 저런 아이들의 모습을 볼때마다 엄마라는 것이
너무 부끄러울 때가 많다.

이제 91년을 본다 보람차게 보내야 할 텐데
우리 놀이방 사람들이 많이 모여 서로 도와 좀 더
좋은 공간을 만들어 그 곳에서 건강하게 잘
자라와면 좋겠다.

그리고 두분 선생님의 정신적 고통도 우리 엄마
들이 함께 모여 이야기 나눌때 조금이나마
덜 두 있으면만

하늘고 바쁜 하루 하루의 생활에서도 두 분 모아
주님께 기도한다.

교사의 소신



야 - , 아 -

줄기차게 들리는 아이들의 울음소리와 웃음소리.
그 속에서 12년시간이 2년을 맞이 한다. 그런데 4.5년은
된 듯한 심지이다. 그만큼 회노애락의 교차가 심했었나보다.
아이들은 저마다 다 공동체 생활에 익숙해지면서도 선생님
을 한 눈 팔지 않고 아이들의 행동 하나하나를 지켜보며 지내
왔다. 그럴때마다 늘 느끼곤 했던 것이 있었다. 그것은 아이
들의 부모로부터 듣는 애정어린 말 한마디와 관심, 아이들
에 대한 부모의 걱정등인 관심이었다. 하루하루 아이들과 일
에 지쳐 있는 내 모습에서 그래도 하이 되어주는 것은 바르
나 아이들의 부모와 함께 나누는 애정과 삶일텐데 저마다
그것이 그렇게 힘든가 보다. 아니 관심이 부족한 탓일수도
있다.

12시간 이상을 부모와 떨어져 공동생활을 한다는 것이 어린
나이의 아이들한테는 인생의 커다란 희를 주는다고 본다. 그리고
그 12시간에 부모들은 말쑥히 직장생활을 한다. 아이
들은 친구들과 선생님과 함께 하루를 보낸다.

지난 2년을 그 때도 매일 12시간 밖에서 보내 나의 시간이
때로는 부족한 듯할때도 있었다. 바로 부모로부터 받는 소
위감을 느낄 때.

우리시대는 모두가 좀 더 전진할 필요가 있다. 삶을 나눌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이기적이고 메달라가고 건강
하지 못한 문화속에 정신을, 진리를 기르며 할 책임이 우리
후세들을 위해 감지여지기 때문이다.

솔직히 부모의 행동거지에 의해 아이가 부모로부터, 교사로부터, 같은
(> page 에서 계속) //

생활 나눔 . 하나 .

최명옥 (2세반 자원)

봄의 향기를 맡으며 커가던 나의 아들
2세반 8 번째 생일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아이넷 클리앙」에 영혼한 지도 벌써 2년
하루 교회 목사님의 두문 선생님께 감사의
말을 올립니다.

시장에서 그곳 가게를 조그맣게 운영하고
있는 우리 부부는 자칫하면 성경이
칼카로와 아이에게 서툰 영어가 되어
나쁜 것 같았으나 아이의 해 많은 웃음소리
가장 증거에 차 있습니다.

제대로 잘하게

그리고, 이제는 제법 능숙한 말도
잘 하는 우리 아이의 성장에 도움을
주고 있는 두문 선생님께 거듭 감사의
말을 올립니다.

시장에서 장사를 하고 있는 나면
어느 정도 영아가 아이의 이름을 부르며
「아이 찾아 살만리」를 명상하 시킬때면
가슴이 뜨겁게 해서 아이가 있는 것은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오랜, 세월이 흐른 아이의 지 4 번

12

매일 내 아이가 보고 싶어서 두 사람에게
웃어, 웃는다... 이럴때면, 두, 버는, 일주일
살아 지고 아이와 함께 웃기를 기원합니다.
어제 이 기원이 수많은 것 이었을까?
직장을 가지고 있는 모든 영가들
하루 빨리 생활이 풍요해져 아이들과
함께 생활하기를 다 같이 하느님께
기도해 볼까요?



- 둘 -

김홍명 (김관사 자부)

어느덧 세월은 못수와 같다더니만 32년 세월이 주말동처럼 흘러만 간다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데 강산이 3번씩이나 변했어도 나에게겐 변한것이 없는것 같다

간지 변한것이 있다면 글을 기록하는 근생활 3년 기록하고 결혼해서 관직이가 어느덧 6살때였다는것

또한 가정으로서 가족의 안전과 행복과 의식주 모든것을 책임져야하는 의무 때문에 직장 생활에 여념이 산다는것뿐

정말 이나이 먹도록 집안안에서 산다는것

집 식구는 이 못나 지아비 재물에 오늘도 무거운 다리를 이끌고 온종일 서종클라 하여 회의를 느끼며

살아 못겠다고 직장에 부간다

부지런이 벌며 내칠이랑도 가려하게 보겠는데, 외업은 자식을 놀이방에 맡겨놓고 직장에 나가야 하는 현실앞에 ---

우리들의 운명이라며 ----

어느덧 우리 관직이를 놀이방에 맡겨 놓고

직장생활하며 만2년이된 세월속에 부모의 무능함을 세심 슬망하게 한다.

그나카로 목적을두고 맞벌이를 하는 우리들에게

14 여저없이 세상은 가파르게 두절 않는다.

주세이는 모르지만 엄청난 재재아래 어려움을 알고

있는 몇군데 안되는 놀이방마저 무거운것을 알고

있는 놀이방

이것이 현실이란 사실앞에 청치하지는 못들이 세상 욕망스러울 뿐이다.

현실 부모에게 재물처럼 리없이 많은 지어주는 아이에

부모와 떨어져 있어야하는 현실.

관직이가 커서 부모를 얼마나 욕망한가...

이제 얼마 안있으면 떨어져 아지랑이가 피어오르면

피땀과로 세상이 돌아나갈지

어서부지런히 노력해서 세상이 돌아나를. 열매가

알알이 맺글듯 우리의 목표로 이루워 겹쳐서 하는 바람이다.

또한 바램이 있다면 돌리는 아이벳 놀이방, 한벳교회가

더 더욱 발전해 하나님은 은총이 언제나 함께 하길

빌며 또한 지방자치제가 우리가 원하는 일꾼이

뽑혀지면 하는 바램이다.



자원봉사를 마치며...

최 양미

T.V 나 신문등의 매스컴을 통하여 여러사람들이 영로원, 고마원
에서 자원봉사를 하는 것을 보아왔다. 자신만의 생활에도 바빠
24시간도 모자랄 정도인데 자신의 시간을 희생하면서까지 남을
위한 봉사를 하고 있는 분들을 보면서 질투나 아울러 부러움을 느낀다.
인생에 있어 보람된 삶이란 어떤의미일까? 그래서 나도 자원봉사
활동에 뛰어들게 되었다. 짧은시간이었지만 아이들 세계에서 느낄 수
있는 그 무엇과 보람이라는 중요한 것을 얻게되었다.

과에서 많은 복합동에 탁아모 사업이 편입되어 있었기 때문에 의복
를 다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였으나 아이들과 함께 한나절을
보낸다는 것은 고작이 아닐 수 없었다. 첫날은 정말 지루하고 따
분했었다. 점심과 간식을 주려면 아이들은 아이들대로 서로들
잘놀이 있어서 내 자신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해 더 그 것 같았다.
하지만 몇주 자원봉사 활동을 하고 나니 놀이방에 안 가는 날이
면 아이들이 보고 싶어했다. 그리고 지나가는 아이들도 다시 한번
보게 되고.

안식이는 빠치기는 잘해도 활발해서 좋고 세병이는 귀여운 행동을
많이 해서 좋고 영현, 동희, 한결이는 선생님이 있느냐 없느냐
아랑뻐하지 않고 서로 잘 노는 모습이 좋고 희현이는 그림이 있는
것이 매력이었고 현숙이는 착해서 좋고 국현이는 선생님나
친해지려는 모습이 보여서 좋고 아람은 아이들의 순수함이 좋았다.

3학년이 된다는 위압감(?)으로 그만두게 되었지만, 나 보로
좀 더 겸허하고 사랑을 나누는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제 또 다시 한번 기회가 있으면 좀 더 सब
한 모습으로 성실히 해볼 것을 가짐에 또 있고 약속해 본다.

수서 사건 어떻게 보나?

매일 아침이면 신문을 들춰보는 일은 누구나 취하는 행동일 것이다.
신문을 펼쳐면서 한 곳에 두 눈을 모았던 곳은 국민 기사석란에 기재
되어 있는 한 이국인의 편지국이었다. 내용만 즉,

수서사건을 노동권에 어떤 영향은 끼칠까?

많은 사람들이 이 사건과 노동조합을 연관지어 말하고
있지만 나는 노동조합은 무사히 통과 경위 생각한다
왜냐하면, 통치권 복신하는 일반대중의 통치권 무관심
이야말로 노동조합에게는 현대의 동맹자가 되고 있기
때문이다. (한겨레 8월 27일 4)

이글은 나에게 나름대로 충격적인 것이었다.
아찌면, 권력은 가진 통치. 경제의 수뇌부들이 검은 손을 휘
두르고, 검은 돈을 흠뻑리고 다닐때 우리 국민들은 통치권
무관심으로 수서지구 특혜분양 사건을 만들었을지도 모른다.
상당한 금액의 녹지를 대지화하기 직전에 집을 지은 목적으로
해서 수현악에 이르는 이국인 행선에는 엄청난 버리가 개
입 되었음은 5공을 살았고 6공에 사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누릴 수 있는 것이다.

인물계, 권력층, 고위 공무원에게 검은 돈은 몇억대씩
부러졌으며, 풍부한 자식을 지닌 집안은 땅권에 부리를 둔 부
녀를 은폐시키고 있다.

신문지상에 언론이라는 한니그를 회장. 국민의 의혹을 사는 문자당
세 최고위원은 포함하여 이번사건에 연관된 사람들이 서서히
드러나고 있다. 검찰은 두려워 말고 과감하게 성명없는 수사를
벌려야 하며 우리 국민은 모두가 두눈 부릅뜨고 지켜보아야 한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통치권 무관심에서 벗어나 작은부분에서
부터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할 때다.

지방자치제도란 무엇인가?

1. 지방자치제는 왜 실시되어야만 하는가?

1) 지방자치제의 역사적 측면에서

1949년에 제정되어 52년부터 10년간 실시되었던 지방자치제는 5. 16군사쿠테타에 의하여 좌절되었다. 그 이유는 중앙집권으로 국민적 통제를 강화시켜서 이른바 “성장과 효율의 이데올로기”를 이루기 위한 것이었다. 그 결과 지난 30년간 민주주의는 좌절되었으며 권위주의적 지배체제를 확립함으로써 민주주의와 인권의 보장등이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2) 지방자치제가 마르게 이루어지면 어떻게 되는가?

① 중앙정치권력의 분산 : 안정된 사회 이룩

지방자치제가 든든하게 뿌리를 내리면 중앙의 불안한 정치가 곧바로 국민들을 불안케하지 못한다. 이는 자식이 출가하면 분가하여 나가듯이 여러 기둥을 세우기 때문이다. 예를들어 정권이 바뀐다고 하여도 지방자치가 강화되면 커다란 혼란을 야기시키지 않을 것이다.

② 지역 발전위한 정책결정과정에서 주민의사 반영

국회의원은 선출이되면 중앙정치무대에서 활동을 하지만 지방의회의원은 지역에서 자기살림을 책임지기 때문에 주민의 의사를 들어서 중앙의 결정에 반대할수있는 입장에 설수도 있는 것이다.

③ 주민위한 봉사 행정의 가능

수원에 구치소 신축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보면 수원시는 법무부의 결정에 전혀 반대하지도 못하는 현상이 일어났었다. 이는 시장의 임명권이 위에 있기 때문에 뒷사람의 눈치를 보게 마련이다. 그러나 자자체가 되면 실제로 주민을 위해서 봉사할수있는 기능이 강화될수 밖에 없을것이다.

3) 지방자치제가 잘못 실시되면 어떻게 되는가?

18

① 이권의 각축장이 되어서 정의의 실현이 불가능해 진다.

명예욕이 강한사람, 정계진출의 징검다리로 이용하려는 사람, 돈을 뿌리면서 당선이 되면은 본전을 찾기 위해서 이권에 개입하게 되고 중앙권력과 밀착하게 되면은 정의로운 사회를 건설하는데 지장을 초래하게 된다.

② 지방자치제의 무용론이 등장할 우려가 있다.

금권 타락 선거가 되고 이권이 개입하고 정치적 야욕을 가진사람이 당선되면 나타나는 현상으로 민주주의에 대한 회의와 냉소주의적 시각이 생겨서 혼란을 가져오며 이는 성장과 효율을 위하여서 자자체를 유보할수 밖에 없는 현상으로 나타날수 있을 것이다.

③ 금권 타락선거가 되면 물가폭등등 경제가 불안해 지고 유능하고 양심적인 인물의 참여가 불가능해 진다.

기초의원이 4287명 광역이 866명인데 3~4명이 출마하여 평균 2~3억을 쓴다면 금번 선거에만 5~6조의 돈이 풀리게 된다. 이는 결과적으로 물가불안 과소비 향락풍조를 야기시키며 결국은 국가경제를 위태롭게 한다. 한편 돈없고 돈안쓰는 양심적 시민세력의 진출을 막게된다.

2. 지방의회의 지위와 기능과 역할

1) 지방자치제의 성격과 지위

헌법 제117, 118조에 명시된 헌법기관으로서 지역적 지배권을 가진 공공단체이며, 행정권의 주체이며, 지역의 권력단체로서 지역민의 최고의사기관이다.

2) 지방자치제의 기능

수평적 3권인 입법, 행정, 사법부에 대하여 전체와 부분의 조화를 이루는 수직적 3권분립의 기능이 완결되는 것이다. 현재 지방에는 행정과 사법관계 기관만이 존재하고 있어서 이를 견제할만한 세력이 없었던 것이다. 그래서 지방의회는 지역의 특수성과 다양성을 존중하며 민주주의를 훈련하는 가장 기초적인 장이 되는것이다.

3) 지방의회의 권능

19

- ① 의결권 (조례의 제정 및 폐지, 예산심의 확정 및 결산의 승인, 사용료 수료 분담금 지방세 등의 부과 징수, 기본재산 또는 적립금의 설치 관리 처분, 중요재산의 취득 처분, 공공 시설의 설치 관리 처분, 예산외 의무부담이나 권리 포기, 기타 법령에 의해 규정된 사항, 조례에 의해 정해진 의결 사항)
- ② 행정 사무 감사 및 조사권
- ③ 청원 수리권
- ④ 자율권
- ⑤ 의사 제출권
- ⑥ 선거권 (예, 의장 교육위원 등)

3. 지방자치제 선거에 있어서 제기되는 문제점

공명선거운동등도 불법적으로 판정을 받게 되어있고 기초에서는 정당을 지지하지 않는 사람을 위해서 시민운동단체등에서 추천하는 일등을 못하도록 규정하여서 정당원만 유리하게 되어있다. 가장 커다란 문제점은 주민소환권, 불신임해산권등이 없어서 주민들의 이상적인 참여가 어렵게 되어있어서 잘못 뽑더라도 4년은 보장되는등의 문제점등이 있다.

4. 지방자치제 선거에 어떻게 참여할 것인가?

1) 이념사념을 뽑지 말세다.

① 사업상 이권을 위해서 출마한 사람

국회의원이 다루는 예산이 22조 지방의원이 다루는 예산이 15조인데 그중 이권과 청탁에 파탄된 예산을 보면 국가가 7조 지방이 10조에 달한다. 그래서 지방의회에 인허가에 관련된 업자가 당선되는것은 고양이 앞에 생선을 걸어놓은 꼴이된다. 한편 이를 이용하려는 정치적 부로커도 경계를 하여야 한다.

② 향락 유흥업소나 부동산투기로 돈을 많이 번 사람

부동산 투기자가 당선되면 토지과표현실화에 제동이 걸리고 그린벨트등이 훼손될 우려가 있으며 뗏뗏치 못한 사람들을 정당화 시켜주는 꼴이 되는 것이다.

③ 학원, 지원등을 부속어서 지방색을 주장하는 사람

우리민족의 망국적 병으로 여겨지는 지방색이 다시한번 지자체에 나타나게되면 제도를 망치는 결과를 초래하 것이다.

④ 공약을 남발하거나 권력의 편에 물들어 있는 사람

한정된 예산에서 몇몇 사람들만을 위한 공약이 남발되면 문제가된다. 그리고 현재의 부패된 정치구도에 물든사람이 되면 새로운 정치적 변화를 가져오기 어려울 것이다.

2) 이념사념을 뽑을세다.

① 이권개입과 관계없는 청렴한 사람

지방의회 의원은 무보수 봉사직이기 때문에 능력도 중요하지만 청렴한 사람이어야 한다.

② 전문적인 식견을 갖추고 지역일에 봉사할수 있는 사람

환경, 교육, 복지등에 관심을 갖고 있거나 이를 전문적으로 살필수있는 전문직에 종사하며 중앙진출을 고려하지 않는 사람이 좋다.

③ 자신의 선거비를 공개하면서 정직한 선거운동을 하는 사람

선거와 관련된 수입, 지출의 내역을 공개하여야 한다. 가능하면 주민들에게 공개 모금을 하여야 한다. 그것은 자기돈을 쓰면 본전 생각이 나기 때문이다. 그래야만 정직할수 있는 것이다.

④ 각계 각층의 지역주민의 의사를 반영할수 있도록 의사전달에 능한사람

정의의 편에서서 갈등과 이해관계가 복잡한 각계각층의 실상과 허상을 구분할수 있는 판단력을 갖추고 대화와 타협으로 합의를 도출할수 있어야한다

⑤ 주민자치와 참여민주주의를 조직화 할수 있는 사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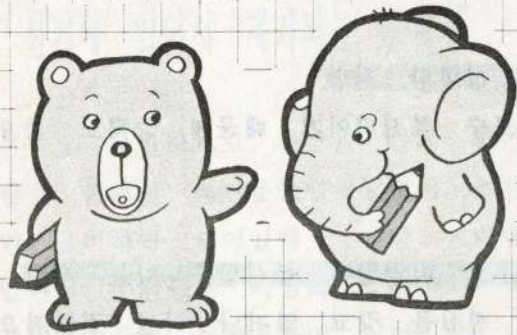
국회의원처럼 한번 뽑아노면 그만이 아니라 계속해서 주민의 참여를 유도해내고 민주주의의 훈련을 계속할수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2

5. 금번 지방자치제 선거에 우리는 어떻게 하여야 하는가?

참으로 위에서 제기한 바대로의 실전을 기대하기란 그리 쉽지 않은 것이 작금의 현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즘같이 불의하고 불안한 현실속에서는 양심있고 뜻있는 사람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가 요청된다.

그리고 유권자들은 받아먹고 안찍는 것을 넘어서 안받아먹고 정직하고 올바른 곳에 투표하는 성숙한 모습을 보여야 할 것이다.



(11페이지에서
복귀 계속)

친구로부터 받은 영향은 대단히 크다. 그럼에도 이제는 교사도 포기할 만큼 무차별하게 보이는 부패를 만났던 가슴이 아프다. 아니 자라나는 세대를 보호하고 교육하는 임장이 선 나라가 내쳐 해결때도 있다.

이 글로 인해 전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바로 이것이다.
"생명의 양태라 그런 만한 애정없는 책임감"

그래서 내심은 위대하다.

시대가 변함에 따라 우리들의 가치관도 변하지만 사랑은 변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단지, 그 표현방식은 달라질지라도.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내면함은 가지며 힘든 하루하루를 사랑으로 힘있게 살아야 모두 잊지 않을가 생각해 본다.

>>

사랑

김 남 주

사랑만이

겨울을 이기고

봄을 기다릴 줄 안다

사랑만이

불모의 땅을 갈아엎고

제 뼈를 갈아 재로 뿌릴 줄 안다

천 년을 두고 오늘

봄의 언덕에

한그루의 나무를 심을 줄 안다

그리고 가시를 끝낸 들에서

사랑만이

인간의 사랑만이

사과 하나 둘로 쪼개

나눠 가질 줄 안다

23

또 하나의 생명

이정숙 (한빛교회)

따사롭게 번져오는 가을 햇살,
간밤에 설친 잠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달콤한 꿈속으로
빠져들려고 할때, 응-애, 응-애
미후 저 녀석이 또 갓네. 피곤하게 느껴지는 몸으로 달려가니
풍덩하게 젖은 기저기 > 10일 동안 익힌 솜씨로 기저기를 갈아주자
아기는 야뎃 인제 울었느냐는 모습으로 웃어 보인다.
아이를 해산한 후 천정에서 산후조리를 하면서 새롭게 다가
서지는 어머니의 모습이다.
임신한 것을 안 후 부터 우리 부부는 태어날 새 생명에 대한
기대감과 신비감, 낯이 붙어오는 배를 보면서 앞으로 태어날
생명에 대한 준비를 나름대로 열심히 책을 통해서 익혔건만,
막상 실전에 부딪치니 아무리 새로운 육아방법이 있다지만 우리
어머니들의 손길을 따를 수가 없었다.
"명주 옷감의 고풍처럼 곱디 곱고 연약하기 짝이 없는 아이인지라"
이렇게 이렇게 다루어야 한다고 밀려주시는 친정엄마.
아유 많이 막 울어대는 아이를 보면서 애타하며 엄마에게 "
애가 왜 울어요 엄마. 미후 속상해 뭐 알아야지 도와 주던지 하
지" 하며 (혹시 아빠 땀아서 그런거 아냐?) 안타까워하는 나
에게 엄마는 웃으시면서 "딸 놓아 카우려니 힘들지 그렇게
너희들도 힘겹게 엄마가 키웠단다." 하시며 아이를 달래
거.

그신다. 말을 하면 도와주거나 타일러 줄 텐데 말도
못한채 숨이 넘어갈듯 울어대는 아기를 보고 있노라면
속상해서 안절부절 못하는 내게. 엄마는 "자식을 키
우는 것은 농부가 농사를 짓는것 보다 더 힘들지 그러나 이
제는 진짜 엄마가 되었으니깐 엄마 역할을 꼭 바르 잘
해주어야지" 하며 말씀하신다.

그래 아직은 멀었지만 난 이제 엄마다. 진짜 엄마가 된
것이다. 하는 다짐을하여 본다.

오늘도 칭칭 아가 (우렁이)를 등에 업고 쏟아지는 잠을 참으
면서 잠을 재우고 있다. 모두들 잠이든 늦은 밤에

자장가를 부르며 나를 이렇게 키우신 엄마를 생각하니
죄송하고 미안하고 ... 그러나 무척이나 엄마에게 감사드리며
내가 우리 아이를 사랑하는 만큼 엄마의 더 강한 사랑이 내 가슴에
파고 든다. 겨울녘의 매서운 찬바람처럼 "엄마, 난 이제야
엄마의 사랑을 알게 되네요. 엄마 진정으로 사랑해요" 하는
마음을 갖게 된다.

한편 우리 한빛교회의 아이벙돌이방을 보면 사랑하는 아이를
선생님한테 맡겨놓고 일을 나가는 엄마들의 심정은 어떤것일까
하는 생각을 해 본다. 그리고 아직 결혼은 안한 처녀들이지만
돌이방 아이들을 엄마처럼 돌보는 두 선생님들의 노고를 생각해 본다.

모름같이 각박한 세태속에서 모두가 자식과 아이들을 사랑
하는 엄마와 같은 모습이라면 하는 생각을 하면서 나도 우리
엄마처럼 좋은 엄마가 되기를 다짐해 본다.

2.

공공성 (남6)

공공성에서 이익이 큰
사람들에게 양보도 강행하며 민중의
이익을 위하여
백지화하는 것 좋아한다
그래서 친구들에게 인기가 있습니다.

당부성 (남6)

노아방에서 통통하게 살이 쪼
기어납니다. 선생님도 (계절때와 그렇지
않을때) 행동이 달라져 많기도 하지만,
그게 나름대로는 잘 할려고 노력하는 경우예요.
공공 성수를 하여 선생님의 손을 태우는
작도 있어요.

신상성 (남6)

정신적으로 인해 사랑을 받지 않는 것만
장난감을 (들)이 친구들에게 주기도 하고
독립적으로 만들어 자랑도 합니다
그리고 의지해 행동으로 친구, 동생들을 돕습니다
나, 동화책을 아주 잘 읽어요.

김광성 (남6)

친구들의 기분을 잘 풀여주는
사람입니다. 사물에서 물리워서 그렇지
생각을 잘 하는 친구예요.
친구 자주 놀러오면 그제면
친구들은 잘(?)

신영현 (남6)

목소리도 맑고 노래도 잘부르는 친구입니다.
노래, 부끄럼을 잘 타 팔을 제대로
움직입니다.
선생님 말씀도 잘하고요. 거절도 안꺼주는
친구입니다.

최희성 (남6)

제주 당지를 매우 잘한 친구입니다.
그리고 고집도 세구요.

유현수 (남6)

말을 잘하며, 물가로 갈때마다 물가로 갈라
는 친구입니다. 친구들이 잘못하면 고
려해서 물려서 마치고 끝까지 이야기를

오세영 (남6)

성질이 매우 단단한
친구예요. 친구들이 잘못
하면 '미안해' 사과

최성민 (남6)

숙련함과 부끄러움을 잘
타서 제대로 말을 못하게
지금은 말도 잘하고 권을
과 아끼면서 놀이를 잘합니다
그래서 몸이 자주 아프지 않아요.

박영진 (남6)

말을 예쁘게 하는 친구입니다.
자기가 잘못을 하면 '나 뺄까?' 하며
알고서 있기도 하고요, 그리고 부끄러움 타는
때도 너무 자주 있어요.

김산 (남6)

놀이방에서 유일한 여자친구입니다.
오빠들이 상이를 무척 좋아합니다.
놀이할때 오빠들이 가까이 오면 기분이
좋지 않음에도 있지만, 상이가 오면
참고며 오빠들이 상이가 아파있느냐며
물어봐요. 선생님이 친해지면 상이를 좋아

최은혜 (남6)

이런 친구요.
선생님이 성숙하면
모든것을 성숙해 주도록
자신의 언어로 대답하는 친구
예요.

100

100

100

100

2

알립니다.

자모회

▶ 우월 자모회

레월 10일 자모회를 열어 자모교육과 그달 반건을 토론하는 자리.

우리 자모님들도 작금의 시국을 절박하여 우리네 세인들이 알아야 할 생활상의 필요한 지식들을 함께 나누려 합니다. 아직 정착되지는 않았지만 91년에는 하나하나 계획하여 좋은 자리를 만들려고 합니다.

자모님들의 참여가 부진하여 서로 삶을 공유하는데 아쉬움도 있지만 앞으로는 열심히 참여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놀이방을 위한 사업이나 놀이방 자모들의 공동사업, 자그마한 소모임 베품교실 등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 자모회 임원 새로이 구성

91년 자모회 임원이 새로이 구성되었습니다.

회장 : 박봉자 (윤곡회 자모)

편집부장 : 홍명자 (기림회 자모) 축하합니다

해들과 어려운 하루하루의 생활속에서도 우리의 사랑스런 아이들이 있는 나 - 놀이방을 위하여 성의껏 일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할 수 있다면 친교부장도 있으면 좋운데 왜 그런지 자모님들의 적극적인 반응이 없애 다음으로 12월을 내년에는 분해서 우리들의 친교를 도모하야 하겠습니다.

새 임원들이 취임사 바두한 말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다른 자모들께서도 애정어린 눈길과 관심 바랍니다. >8.

자모님들

따뜻한 열심히 두근 두근 자모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방학이 되면서도 열심히 도와주셨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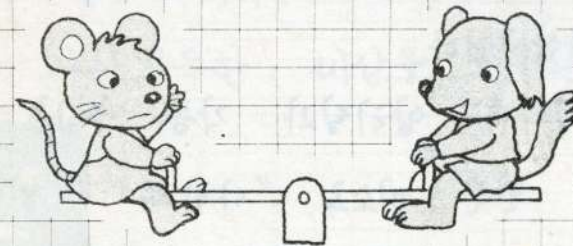
이해미, 강현희, 민미정, 이기원. 선생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올해에는 더 좋은 많은 선생님들이 인사합니다.

그리고 공동회 여신도회에서 모여서 함께 낚시장을 보내기로 하였습니다.

대박 대박 자모님들께 선생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우리들이 밤나 같은 탁아소에서 일하신다고 합니다.

자모님들의 애정어린 한 마디에 큰 힘이 되어 이땅의 우리네 아이들을 보듬고 교육하는데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놀이방 신문

2달에 한번 놀이방 신문이 발행됩니다.

우리들 주변에 일어나는 시사면들을 함께 이야기 하며, 주위에 일어난 일, 경험했던 일들 삶을 나누며 같이 이야기 해보는 자리입니다. 비록 글로 표현하기는 해도 글 쓰는 일이 우리 엄마들에게는 익숙하지 않아 힘겹기도 해요.

자모회 편집부, 자원봉사 선생님, 교사께서 열심히 해 주셨습니다. 올해에는 5월달에 발행되니 생활상의 이야기를 수필로, 시로 여러 형태로 듣고 기다립니다.

2P.

놀이방 속에서 작은 배움들

- 이 기 원

조금 T.V에나 이런 노래를 가끔 듣는다.

"나는 왕이로소이다. 나는 왕이로소이다. 원하는걸 뭐든지 가질 수 있는 나는 왕이로소이다."

성경 말씀에 하늘 나라의 주인은 아이들이라는 구절을 들었으니 자기 자신만이 '왕'이라고 항변하는 어느 꼬마의 노래 속에서 오늘날 우리시대 아이들의 모습과 아이벳 놀이방 친구들의 모습이 교차해 갔다.

아이벳 친구들과 몇번씩 만났으니 다음 느낄수 있었던 것은 아이들 특유의 건장함이였다.

식사전 손을 씻고 식사후 양치질과 각종 놀이를 통한 육체적 건장함뿐만 아니라 환한 미소로 "사랑해" "미안해" 하며 서로의 어깨를 쓸어주는 인간 본연의 나눔의 모습속에서 정신적 건장함이 흥만함을 느꼈다.

아이들과의 생활속에서 작은 한 순간이라도 놓치지 않고 충실 하신 두분 선생님 모습 속에서 그동안 내가 대해왔던 아이들을 얼마만큼 생각하고 신중하게 대해 왔을까하는 반성이 앞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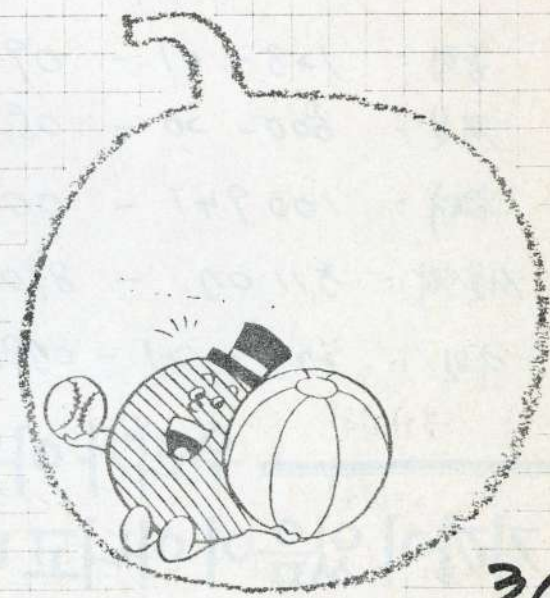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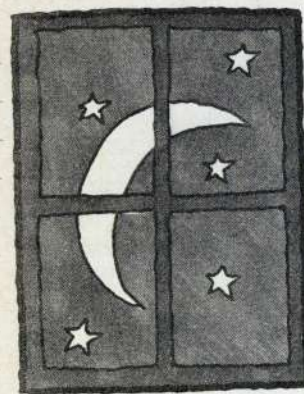
아이는 꼭 얼마가 키워야 한다는 그릇된 인식속에서 놀이방 자리를 불가피한 일시적 엄마의 역할을 나누는 장소로 치부해 버릴때 사회적 교육의 의미는 이미 상실되고 말것이다. 간혹 아이들과의 사소한 마찰속에서 내 아이의 소중함을 이야기
30.

하시거나 놀이방 자리를 하나의 가치 지층권으로 생각하시는 부모님을 옆에서 지켜볼 때 매우 아쉬웠다.

아이벳 놀이방이 2년을 맞이 한다고 하니 더러워 놀이방 친구들과 부모님, 선생님들이 벅을 사랑하는 공동체의 주인임을 계속 인식해 나갈때 결실은 풍족하리라 믿는다.

자칫 봉사자로서 부족한 나를 항상 채워 주시던 선생님들과 놀이방 친구들의 건장을 기원하며 또 나의 작은 수고를 격려해 주시던 부모님께 감사드리며 작지만 소중한 배움터에서 지낸 경험들을 모아 또 다른 벅을 사랑하는 공동체를 만들어 나아가야 함을 다시한번 느껴본다.

"친구들! 사랑가득한 세상을 만들어 나가요!"



아이넷 놀이방을 지원하는 후원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이넷 놀이방은

수원시 지동, 인계동 지역에서 일하며 살아가는 주민들과 더불어
살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보다 좋은 환경을 이루어서 교육할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것이 선생님과
여러분들의 소망입니다.

개인 또는 단체별 후원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후원하시는 분은 본 회보와 기타 자료를 우송해 드리며, 놀이방의
잔치에 초청하게 됩니다.

현물로는

비디오, 전축, 장난감, 동화책 등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 온 라인 송금 -

농협 : 128-01-094177 예금주 : 오 규만

계월 : 600-20-056495 " "

우체국 : 100941-0079905 " "

서울신협 : 51107-89020050 " "

국민 : 203-21-0781-806 " 이기영

우리가 이웃인 까닭은
가까이 있음이 아니고 따뜻한 정을 나눴습니다.

아이벗 놀이방

1991. 3. 10.

<제 2 호>

발행인 : 오 규 닷 목사

편집자 : 김수연, 이미영 선생

440-060

수원시 장안구 지동 365-17

<0331.7.4700>